

20241009 수요일예배 (설교: 김세중 선교사) 복의 근원 [창세기 12:1-3]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 감사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세중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교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응답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 항상 기도하는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그 중에서 캄보디아라고 하는 한 나라와 그리고 크메르 민족이라고 하는 정말 1970년대에 세계 역사의 가장 아픔을 겪었던 그 크메르 민족 복음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많이 까맣죠? 원래 제가 캄보디아로 갈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께서 캄보디아를 두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셔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낼까 하고 찾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색깔이 비슷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집어서 그쪽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표시가 안 나는데 한국에 왔더니 표시가 너무 많이 나요. 저희 집사람이 얼굴에다 이렇게 하얗게 발라주고 했습니다.

서론>

▶ 캄보디아는 지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금 남한 면적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캄보디아 내 인구는 1700만 명, 그런데 100여 년 동안 프랑스 식민지 시기를 거쳤는데 그때에 크메르 민족들이 이렇게 여러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 지금 현재 캄보디아가 25개 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1개 주를 베트남에게 뺏겼고요. 그리고 35개 주를 태국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6개 주를 뺏겨서 크메르 민족 전체를 보면 지금 캄보디아 내에 1700만, 그리고 그 외에 흩어져 있는 주위에 해서 한 5천만 명,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한 민족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킬링 필드의 그 아픔이 있는 크메르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캄보디아는 주로 이제 많이 공산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왕이 있는 입헌군주제입니다. 지금 현재 시아모니 국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당 독재지만 당이 있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훈센이라고 하는 총리가 약 38년 동안 장기적으로 총리로서 독재 정치를 해오다가 작년 8월에 아들에게 그 총리직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캄보디아 훈마넷 총리는 그 훈센 총리의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인데 지금 캄보디아는 민주주의로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인도차이나 반도 내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다락방 선교사는 저 혼자입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항상 누리도록.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앙코르와트,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크다고 할 만한 그러한 우상의 신전이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습니다. 앙코르와트인데요. 전체가 힌두교 신전으로 지어졌는데 전체가 전부, 모든 건물이 뱀의 형상입니다.

▶ 지붕, 처마, 모든 것들 돌레가 전부 뱀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뱀의 머리도 '나가'라고 해서 큰 머리에 3개의 머리를 가진 뱀, 7개, 9개, 주로 7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나가의 형상이 앙코르와트의 주요 형상의 내용입니다.

▶ 그런데 그러한 뱀의 형상이 왕궁에서부터 도시 곳곳에 독립기념탑에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집안 곳곳에 집 안에도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서 보니까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실제로 드러내놓고,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 그런데 저희 집도 우상숭배를 워낙 열심히 했던 가정이어서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시달렸던 게 그 악몽에 많이 시달렸는데 주로 이제 그 뱀에 그렇게 시달리는 악몽 주로 많이 꿔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나의 과거 시대가 여기에 맞춰져 있었구나! 이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거기 복음 전하는 데는 너무 편안해요. 왜냐면 영적인 문제도 나하고 같고, 우상숭배 해왔던 어떤 종교적인 모습도 같고, 그리고 당하는 고통, 어떤 가정의 문제들이 저하고 너무 비슷해서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그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또 전체 약 9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차이나 반도 그러면 인도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그쪽의 인도차이나 반도는 종교적으로는 인도의 영향이고요.

▶ 경제적으로는 차이나, 그러니까 그 차이나 머니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거의 중국 경제 영향권 아래에 있고요. 그런데 그 중국 문화 중에서도 조상 신 숭배의 그런 문화들이 캄보디아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신전을 만들어놓고, 섬기고 있고요. 집 안에도 섬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 그리고 다른 것보다 캄보디아의 램넛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캄보디아가 1975년에서 1979년까지 해서 그때 폴 포트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약 200만이 넘는, 300만 가량 가까운 그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 그걸 이제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약 800만 명이라고 하니까 거의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그때 많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 그리고 그때 이후로 산하 제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거의 한 가정에 자녀들이 5명, 7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국민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국민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는 46세가 넘는데 거기는 26세 정도 되니까요.

▶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계속 유엔의 지원을 받아오고, 국제 원조를 받아오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해가지고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먹고,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집안 식구들 엄마, 아빠 전부 나가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유치, 유아, 초등, 중등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시골에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그리고 15세 정도 되면 주로 이제 돈을 벌러 도시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또 도시로 나오거나, 그래서 시골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안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막 잔뜩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놈펜을 제외한 거의 각 주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교회에서 유아, 유치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 좀 그 부분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학생들이 동네에 가면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 그리고 캄보디아 지금 교회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선교사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가장 힘든 게 개미에 물려가지고 며칠 동안 앓았다, 혹은 또 땀겨열에 너무 힘들었다, 시골길을 가는데 차가 빠지고, 또 12시간을 가서 한 사람을 만나고 왔다. 그러면 '아, 참 선교사님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게 이제 예레미야적 사고를 가지고, 선교를 보는 기준이라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교회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예레미야적인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을 상당히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그런 마인드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 봉사,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집을 지어주기

도 하고,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요.

▶ 그런데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고, 주일날 겨우 몇 명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만난 그 현지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지원을 똑바로 안 해주니까 전도 운동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흑석동 중앙교회'예요. 그게 이제 캄보디아에 그걸 적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교회도 한국에서는 많이 지어주려고 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가정 집도 지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현장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기하더라고요.

▶ '다른 선교사님은 와가지고, 쌀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집도 지어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르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 저도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캄보디아 말을 못 배우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막 저한테 무슨 말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캄보디아 말을 못하니까 너무 뚱하요. 분명히 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저희가 뭐가 힘들어요, 뭘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런 얼굴 표정이예요.

▶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만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고 하니까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왔다가, 정말 선교사가 왔다고 하면 막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라고 해도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 복음 안 주고, 다른 걸 주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 그리고 또 거기에 가면 선교사들을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들끼리도 판단을 하고, 또 다른 한국 내에서도 판단하겠죠. 우리 하나교회 빼고 다 그래요. 그런데 A급, B급, C급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 그러니까 이제 C급은 평신도로 자비량 선교사로 온 사람들, B급은 담임목사를 거치지 않은 부목사 출신의 선교사, 그리고 A급은 담임목사를 하고, 목회의 쓴맛을 보고 오신 분들, 제가 A급 아십니까? 제가 소개하는 데 쓴 거예요, 개척교회 5년 했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총주에서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계속 강가만 걸어 다녔어요.

▶ 그런데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판단 기준이 거의 대부분 목사,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선교비만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차도 좋은 차 타고, 집도 좋은 집에서, 그리고 돈도 막 쓰고 놀러만 다닌다, 골프 치러 다닌다,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전부 다 세례요한 같아요.

▶ 그런데 여기 하나교회 오니까 천사들의 합창이 막 들려오고, 또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너무 밝고, 어떤 곳에 가면 공격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어떤 말을 실수를 하나 보자.',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런 세례요한적인, 그리고 예레미야적인, 그리고 가니까 거기 가면 또 선교사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 대부분이 그쪽에 교회에, 목사에 대한 인식이 기도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병 치료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바라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런 게 없다는 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시더라고요, 다리 아프신 분도 오고,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오고요.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금방 눈치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두 번 오시다가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셔도 괜찮다.

▶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엘리야나 이런 선교,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친다, 말씀을 암송한다, 이런 걸로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요. 선교사분들이 그런 선교 현지의 상황입니다.

▶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정말로 제가 날마다 좀 힘주어서 외치는 것은 이 캄보디아 현장을 살리는 것은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에 가니까 저에게도 이 선교비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하나교회에서 또 선교에 대해서 중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시니까, 어느 날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막 저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저한테 가득 찼어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도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저 떨어져 있는 부모를 위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아이를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빨리 확보했으면 좋겠다.

▶ 그러면서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막 우울증이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하고 떨어져 있고, 부부 떨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꼭 찼어요, 가득.

▶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이제 창세기 3장 쪽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갑자기 딱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까. '왜 너는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도록 그리스도 붙잡도록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 그날부터 정말로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답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그게 캄보디아의 교회 상황이고요.

▶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캄보디아로 가게 되면서 캄보디아가 태국이나 어떤 주변 나라들의 어떤 아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인도차이나 반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독암의 꼭짓점이라, 이게 좀 보여줬습니다.

▶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현장에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캄보디아 선교에 그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실 수 있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본문> 선교 보고(캄보디아 임마누엘 교회)

▶ 지금 현재 진행 되어지고 있는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잠깐 PPT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 1월부터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섯 챗터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캄보디아 임마누엘 교회, 저희 본 교회고요.

▶ 그리고 민째이 임마누엘 교회, 가가지고 개척한 지교회고요. 그리고 키엔스카이 지교회, 따까에우 지교회, 그리고 캄뽕스프 고아원, 우리 하나교회 우리 이상훈 집사님을 통해서 문이 열린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캄뽕치낭 순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캄보디아 임마누엘 교회

▶ 주일 예배 우리 캄보디아 임마누엘 교회 지금 현재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청년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고, 지금 현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35명 정도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램넌트 신학교를 허락해서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부노회의 목사님들께서 주 강사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류 목사님은 왜 안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 그래서 '류 목사님은 바쁘셔서 너희들 강의할 시간은 별로 없을걸.',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신봉준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우리 귀한 부목사님들도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7명으로 신학교를 시작했고, 지금 2학기 마쳤고, 11월에 3학기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지금 3명의 신학생이 더 포함될 것 같습니다.

▶ 지금 거의 저희는 월, 화, 수는 신학교 수업을 진행하고요. 수요일날 오후부터 해서 주일날까지 쉬는 날은 없습니다. 현장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지속합니다. 지금 저기는 프놈펜 왕립대학이라고 해서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가장 큰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에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오기 전에 NGO를 설립을 준비했었는데 약 한 몇 개월 만에 9월달에 'NGO-DOS'라는 이름으로 지금 NGO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밋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NGO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저기는 껌뽕 고등학교라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빗물 식수화 작업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빗물 식수화 작업을 마쳐서 지금 현재 이제 빗물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빗물 동아리, 그러니까 빗물 관리를 위해서 빗물 동아리가 있습니다. 지금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7명이 졸업하게 되어서 지금은 17명, 1년에 한 차례씩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지고, 계속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저기 지금 고등학생인데 빗물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는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몇천 명인데 그중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 전부 프놈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복음화를 두고, 지금 그 빗물 식수화 작업에 전도, 선교의 축복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입니다.

2. 민째이 임마누엘 교회

▶ 여기는 이제 민째이 임마누엘 교회인데요. 처음 들어가 가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2명으로 시작해서 다락방을 계속했는데요. 작년 1월달 부터 했는데 6월달에 교회를 얻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주일 오후 3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도 한 4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세 반으로 나눠서 우리 신학생들, 사역자들이 교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평일 수요일 오후에는 여기 들어가서 이제 다락방 사역을 오후에 쭉 하고요. 그리고 확장 주일 학교로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사를 2명을 해서 '민째이 놀이방'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오전에 와서 말씀 듣고, 거기서 실컷 놀다 갈 수 있도록 놀이방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진행합니다.

3. 키엔스와이 임마누엘 교회

▶ 그리고 여기 키엔스와이 지역의 지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줌으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대부분 지금 보 여드리는 그런 지교회들이 저희 본 교회는 캄보디아 프놈펜 수도 내에 있고요.

▶ 그리고 민째이 지교회도 수도에 있고, 나머지 지교회들은 우리 나라로 치면 경기도권 이렇게 있는 교회입니다. 키엔스와이 임마누엘 교회에 주일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직접 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 토요일날 하루 종일 저 지역에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7군데 지역에서 말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유치, 초, 중 여기에 주로 대상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보통 30명, 40명 어린아이들이 계속 말씀을 현장에 서 듣고 있습니다.

▶ 그리고 특별히 저 지역에서 6지역은 하나님께서 또 한 가정을 10년 동안 본인들만 예배드리고 있다가 가정에 가서 이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만났는데 거기에 성경의 인물들이 다 있더라고요. 엘리야, 에스더 다 있어요.

▶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 이름을 전부 성경의 인물들로 다 지어놔 가지고, 저기에 갔더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교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기도 지교회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4. 따까에우 임마누엘 교회

▶ 저기는 따까에우 임마누엘 교회, 그래서 따까에우라고 하는 주 지역입니다. 저기 가운데 앉아 있는 저분이 완전히 불신자고, 누나가 교회 지금 아까 키엔스와이 지역에 지교회 담당자인데 엄청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 그런데 이제 심장에 문제가 와서 복음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 듣고 나더니 가가지고, 도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 도끼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다 깨더라고요. 저분이 그러가지고 밖에 세워놓은 우상의 제단도 다 헐어버리고, 방 안에 있는 것도 다 꺼내가지고, 그날로 다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그다음 주에 갔더니 자기 가족들을 다 모 아났어요.

▶ 그래서 그날로 하면 한 20여 명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지교회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 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세 군데 현장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군데는 봉제 공장인데 핸드북을 만드는 공장인데 직원만 천 명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제 문이 열려서 거기에 이제 전문 교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요일날은 또 그 현장에 가서 계속 상담 사역을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따까에우 지역에 전문교회, 목요일날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매주 이렇게 만나면서 상담 사역, 영접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캄뽕스프 고아원

▶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교회의 기도가 담겨 있는 우리 캄뽕스프 고아원입니다. 저기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 연락을 받았어요. 저기 우리 홍하람 전도사 아빠 선교사님이 저하고 친구예요 필리핀에,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하나교회 종직자 분이 캄뽕스프 지역에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는데 연락 오거든 잘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그래서 이제 2월달에 우리 신봉준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 거기 고아원에 후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역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선교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죠.'

▶ 그래서 이제 2월달에 우리 이상훈 집사님과 함께 캄뽕스프 거기도 한 주예요. 주지사, 부주지사 이렇게 만나가지고 MOU 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상훈 집사님께서도 그렇고, 거기 원장님도 그렇고,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 그래서 주일날 아침 8시에 전체 우리 고아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금요일날 한 번 더 가가지고, 따로 성경공부반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활동반, 놀이반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 저기에서는 지금 아이들 2살부터 해가지고, 18살까지 저 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은혜를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 말씀을 듣고 너무 사모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동물원도 가고, 막 달란트 잔치도 준비해 가지고 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저도 재미있고, 우리 사역자들도 재미있고, 우리 학생들도 너무 재미있고, 좀 아쉬운 건 이제 우리 이상훈 집사님처럼 다 같이 와서 같이 이렇게 하면 엄청 좋을 건데요.

▶ 저기 이번에 우리 종직자 분들하고, 같이 우리 홍하람 전도사님이랑 해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캄뽕스프 고아원이 달란트 잔치를 할 수 있는 걸 막 다 갖다 줬어요. 거기에 웃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마 생전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 그리고 또 사고 싶은 옷, 학용품, 이런 것은 자유롭게 사는 건 인생 첫 번째였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그 사역자들도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너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 지금 그래서 우리 NGO 활동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넘겨서 금요일날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이 실컷 축구하고 놀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프로젝트 해가지고 또 말씀 나누고, 그리고 끝나면 같이 밥 먹고, 막 그렇게 너무 재미있게, 너무 즐겁게 보내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밥맛 없는 밥 투정하는 자녀 있거든 저쪽으로 바로 보내십시오. 제가 아주 맛있는 걸로 잘 먹여 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6. 캄뽕치낭

▶ 그래서 줌으로 이제 두 군데 지역 주일날, 캄뽕치낭 지역에 저분도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요, 장로로 이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 현장으로 들어온 가정입니다. 썸낭 장로님 가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부인이 간호사로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언제든지 이제 의료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줌으로 이렇게 키엔스와이 지역하고 캄뽕치낭 지역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7. 기도제목

▶ 기도제목, CRTS입니다, 캄보디아 램넌트 신학교. 그리고 CRLS, 이게 지금 이제 서밋스쿨인데요, 캄보디아 램넌트 리더 스쿨. 그리고 CRMC, 캄보디아 램넌트 미션 센터, 이걸 우리 스스로 선교, 그리고 전도 운동, 인도차이나 반도 복음화 운동 하는데 종직자들 일어나야 된다, CRMC입니다. 그리고 DOS-NGO, 그리고 프놈펜 25개 주 두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현재 사역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 복의 근원

▶ 제가 여기에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 기준만 조금 바뀌면 될 것 같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한 게 뭐냐 하면 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홍하람 전도사님도 와가지고, 다락방 사역을 하는데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은혜를 또 받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종교 생활에 묶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1:27-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복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그 죄의 저주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지옥 배경 아래에 놓이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잃어버린 거죠.

▶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복을 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캄보디아 현장에 가니까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사탄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힌두교, 불교, 조상숭배 다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만들어놓고서 섬기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니까요.

▶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지붕에도 복, 밥 먹을 때 숟가락에도 복, 그렇죠? 밥 그릇에도 복, 복을 퍼먹어야죠. 저기 칠복이 이름, 혹시 그 이름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정말로 축복받은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복음, 복 소리.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가 원래 인간이 가졌던 그 복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피 언약의 비밀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 거죠.

▶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진짜 복을 어떻게 구하고 있는데 진짜 복을 줘야지, 내가 가진 그리스도가 참된 복이다 이걸 말하고 있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봉종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본질을 회복하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나? 이 복음의 본질,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는 이미 복을 다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참된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냐? 제가 그 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누릴 것인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말씀하셨죠.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 다 주겠다.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밟는 땅 다 주겠다. 어린 양을 잡아서 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가 내가 가진 복,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 그런데 원래 우리는 예배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란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을 바꾼 거죠. 그래서 돌을 가져다 놓고도 예배하고, 나무를 깎아놓고도 예배하고, 그리고 스님을 불러놓고도 예배하고요.

▶ 제가 충주에 있는데요. 충주에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무당들이 와가지고 굿 하는 곳이 있어요. 길가에 큰 돌이 있고, 그 뒤에 벼락 맞아서 죽은 소나무가 있어요. 한 200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에다가 막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감아놓고, 거기에서 굿 하고, 막 빌고 그러죠.

▶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는데 딱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저 썩은 소나무도 영권이 저렇게 있는데.', 그러니 제 자신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봐라 저 썩은 소나무도 이 근동에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영권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이런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잖아요? 저도 막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죠.

▶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다 하셔버려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진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복은 그리스도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 그래서 마귀는 '자, 내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내가 복이 아니다.', 너는 물질적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좀 이제 세련되어가지고 힐링, 마음의 평안이 참 행복이다, 마음의 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프랑스에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마당을 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영의 복을 찾았다고 얘기하잖아요?

▶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참된 복이다.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그런데 내가 가진 참된 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은 진짜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원래 인간의 본질 자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성막을 쌓아라, 성막을 지어라. 거기에 여호와와 영광이 가득했더라. 솔로몬, 다윗을 통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여기에 있고, 내 귀가 여기에 있고, 내가 그곳에서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확실하게 믿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 학개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 하리라.", 예배드릴 때 온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 안에 있다, 오늘부터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를 나의 인장으로, 도장으로 삼아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너한테 맡긴다.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 그런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헤롯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그게 아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여신 것 아닙니까?

▶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우리 크메르 민족에 참된 복이 회복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 되어지는 그런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복의 비밀을 가지고,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캄보디아 선교회, 우리 하나교회 동역자분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그 곳에 제가 지금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여유 있는 생각, 여유 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의 전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교회와 더불어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캄보디아, 크메르 민족,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 그리고 전 세계 현장에 그대로 응답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 우리 하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인생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제목

1. CRTS(캄보디아 램네프 신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2. CRLS(캄보디아 램네프 리더 스쿨)를 통하여 미래를 살릴 램네프 일어나게 하옵소서.
3. CRMC(캄보디아 램네프 미션 센터)를 통하여 교회운동을 이끌어갈 중직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4. DOS(DOS-NGO)를 통하여 캄보디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5. 프놈펜과 25개 주에 예비된 제자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밝히는 당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교회 자료팀

국장 : 김상진 장로 / 팀장 : 조재호 집사(choddq@hanmail.net)

유튜브 채널(대구하나교회) : <https://www.youtube.com/ihanachurch>

다음 카페 : <http://cafe.daum.net/hanarutc>

교회 홈페이지 : <http://www.ihanachurch.com/>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35 (우. 42748)